



중소형주펀드는 성장성에 주목

What's new

- 지난주 국내주식펀드의 유형별 자금 흐름을 분석한 후, 국면에 따른 업종 성과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 이번주에는 최근 자금 유입이 집중되고 있는 중소형주 펀드 관련 업종을 알아보았습니다.

Our view

- 중소형주펀드로 자금이 유입되었던 2013년과 2015년의 업종 성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 2015년에는 성장성이 중소형주펀드 편입 종목의 공통적 특징입니다.

중소형주펀드, 자금유입 규모 사상 최대

- 지난 5월 이후 중소형주펀드로 9201억원 순유입 . 이는 중소형주 펀드 유입규모로는 사상 최대
- 7월에도 중소형주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

중소형주펀드로 자금 유입될 때의 강세 업종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코스피지수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시황에 따라 중소형주펀드와 배당주펀드 등 스타일펀드로 자금 유입
- 2013년 정책 기대감이 있을 때는 코스닥 중 운송, 비금속 업종의 성과 우수

2015년 중소형주펀드는 성장성 있는 업종에 주목

- 중소형주펀드는 펀드별 특성 뚜렷
- 장기 모멘텀이 있는 제약 · 바이오업종과 중국 소비 관련주 등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의 투자 비중이 높음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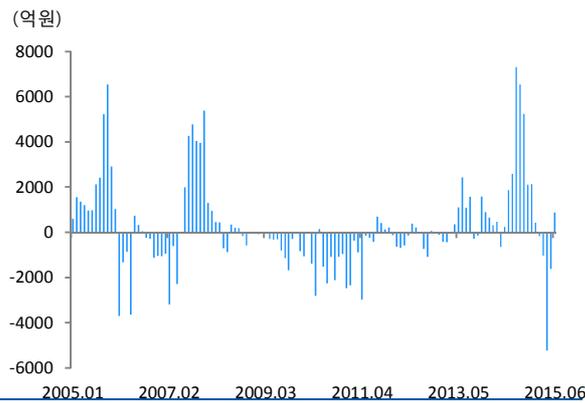
중소형주펀드, 자금유입 규모 사상 최대

코스닥이 연일 강세를 이어가면서, 중소형주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6월 5405억원이 순유입되었던 중소형주펀드는 7월에도 2354억원이 들어왔다. 7월은 10거래일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7월의 중소형주펀드 순유입규모는 6월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형주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액티브펀드와 주식인덱스펀드의 유입 규모는 중소형주펀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정책 기대감으로 자금 유입이 집중되었던 배당주펀드는 올해 들어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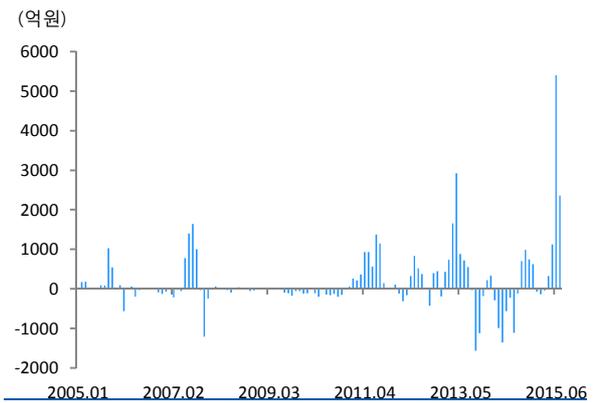
국내주식형펀드 중에서도 성과에 따라 자금 흐름이 차별화되고 있다.

배당주펀드, 상반기 자금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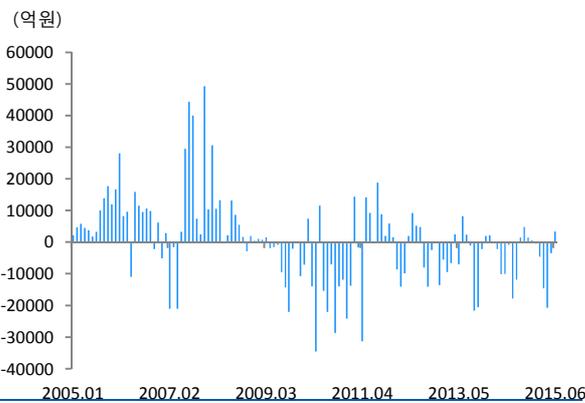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중소형주펀드 자금유입 규모, 사상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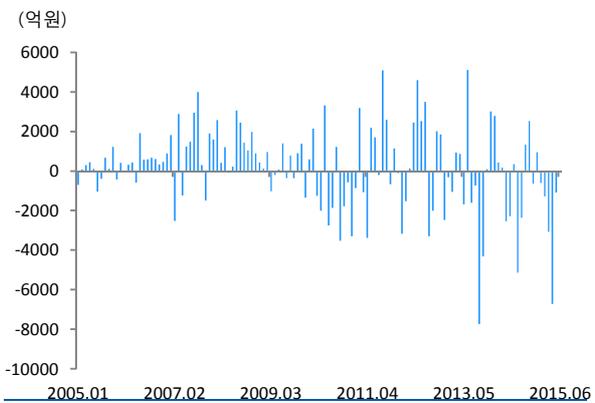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액티브펀드, 2008년 이후 자금 순유출 우세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인덱스펀드, 연초 이후 자금 순유출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중소형주펀드로 자금 유입될 때의 강세 업종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중소형주펀드와 액티브주식펀드의 자금 유입이 비슷한 방향성을 보였다. 주식 시장이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상황에 따라 성과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유형이 강세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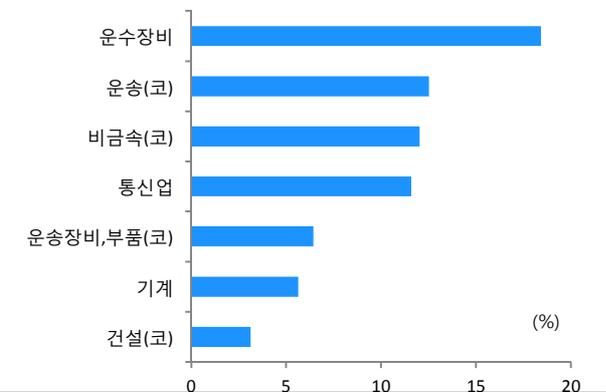
2011년 이후 코스피지수가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면서, 종목 장세가 이어졌다.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주가 관심을 받으면서 2009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중소형주펀드가 액티브주식펀드의 성과를 상회하였다.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가 추세로 이어지면서, 액티브주식펀드에서는 자금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서, 배당주펀드·중소형주펀드 등 스타일 펀드가 시황에 따라 자금 유입이 집중되곤 했다.

2013년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상생경제’가 부각되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013년 2월부터 7월까지 중소형주펀드로는 7452억원이 순유입되었다. 동일 기간 액티브주식펀드에서는 1조 333억원이 순유출되었다. 이 시기, 코스피와 코스닥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운수장비와 코스닥의 운송, 비금속, 운송장비, 건설 업종은 강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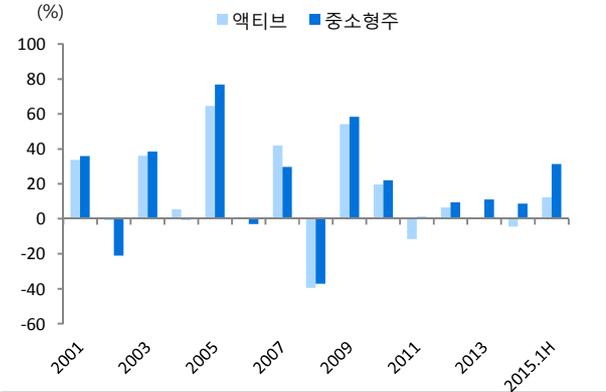
2014년 하반기에는 최경환 총리가 취임하면서 배당주가 큰 관심을 받았다.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배당주펀드로는 2조 7767억원이 순유입되었다. 저금리로 기관투자자의 배당주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일임 형식으로서의 배당주펀드 자금 집행도 늘어났다.

2013.5 월~8 월, 운수장비·운송업종 강세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08년 이후, 중소형주펀드 성과가 액티브주식펀드보다 우수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2015년 중소형주펀드는 성장성 있는 업종에 주목

상반기 그리스와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대외 경제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대형주 성과가 부진하였다. 반면, 제약·바이오 업종의 강세와 중국 소비 관련주 등이 특히 성과가 좋았다.

중소형주펀드는 시총 상위 종목의 비중이 높은 액티브주식펀드와 달리, 운용사별로 특색이 뚜렷하다. 'KB 중소형주포커스', '삼성중소형 Focus', '현대로우프라이스' '동양중소형고배당'의 상위 보유 종목을 살펴보면, 펀드별 특색이 뚜렷하다. 내수주에 중점을 둔 펀드도 있고, 제약·바이오 업종의 투자 비중이 높은 펀드도 있다.

올해 중소형주펀드로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5월 이후, 성장성이 부각되는 업종의 성과가 높다. 제약·바이오 업종이 노령화 시대를 맞아 장기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고, 택배 수요 증가로 종이·목재 업종도 부각되고 있다.

코스닥 상장요건상 특례를 마련하여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기업은 신성장동력기업의 상장특례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인된 정부기관으로부터 기술력을 검증받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부각되는 현 시장 상황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강세는 노령화와 바이오기술 발달로 장기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국 소비 관련주인 화장품 업종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도 중소형주펀드의 상위 종목에 포함된 경우가 많다.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소형주펀드의 가구 업종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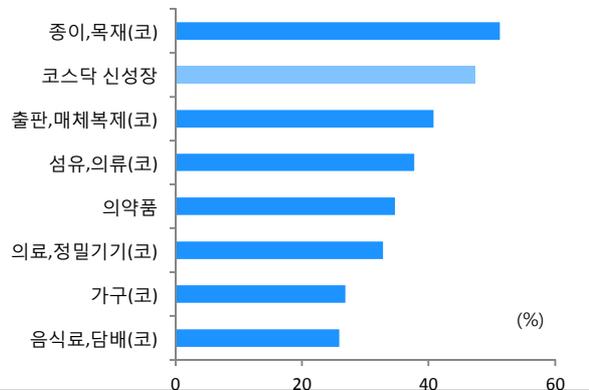
2015년 중소형주펀드는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중소형주펀드 상위 보유종목

KB중소형포커스	삼성중소형 Focus	현대로우프라이스	동양중소형
골프존유원홀딩스	아모레G	씨에스윈드	한미약품
컴투스	대상	인트론바이오	산성열연에스
리드코프	한전KPS	씨젠	아모레퍼시픽
필라코리아	한국전력	씨티씨바이오	에이블씨엔씨
케이비캐피탈	한세실업	사조씨푸드	이수페타시스
NAVER	한샘	셀트리온	이엠텍
한솔케미칼	메리트증권증권	컴투스	CJ E&M
무학	메리츠금융지주	SKC&C	제닉
현대리바트	로엔	제일모직	슈피겐코리아
일신방직	SK하이닉스	테크윙	롯데하이마트

자료: 각 펀드의 운용보고서,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월 기준, 단, KB 중소형포커스는 3월 기준

2015.5월~7월, 성장성 높은 업종 강세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7월 21일 기준